

## 지역명문 동의대의 새 시대 선언

박근우 | 동의대 총장

동의대학교는 부산의 중견 사학으로 '동의지천(東義知天)'의 건학이념에 바탕을 둔 진리, 정의, 창의를 교시 아래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인, 정의를 구현하는 지도자, 창의를 실현하는 세계인의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건학이념 '동의지천(東義知天)'은 '하늘을 아는, 새롭고 올바른 사람을 기르는 곳'이라는 심오한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곧 교명 '동의(東義)'는 지상의 현실이며, '지천(知天)'은 진리이자 천상의 이상을 뜻하고 있다. 동양의 정신적 가치 지향을 바탕으로

현실과 이상이 순천자의 개념으로 인륜과 천륜을 연결시키는 교육의 장이 바로 동의대학교이다. 서구 물질적 가치의 귀결점은 동양의 정신적 가치라는 세기의 전환을 미래지향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교육이념이라 자부하고 있다.

###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환경

동의대학교는 부산의 중심인 서면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자연환경 속에 둘러싸인 그린캠퍼스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1만 4천여 학생들이 계절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끼면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있다. 또 교통이 매우 편리하여 부산 지하철 2호선 등의 대역은 1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에서 3구간이며, 부산의 동서 도심을 가르는 가야로와 제 3도시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최상의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지역 학술행사를 비롯해 전국적인 학술세미나와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의대 캠퍼스는 가야캠퍼스와 한의과대학과 부속한방병원, 동의병원 등으로 구성된 양정캠퍼스로 이원화되어 있다. 두 캠퍼스는 부산의 중심인 서면을 기점으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적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 학생 중심의 교육 지향

동의대학교는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의 후생복지 시설에서부터 졸업 후 진로를 보장할 수 있는 실용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투자 결과, 후생복지 시설, 충분한 열람공간을 갖춘 중앙도서관, 정보화 교육환경을 위한 전산정보원, Native Speaker에 의한 외국어교육,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지원하는 학생서비스센터 등 학생 중심의 완벽한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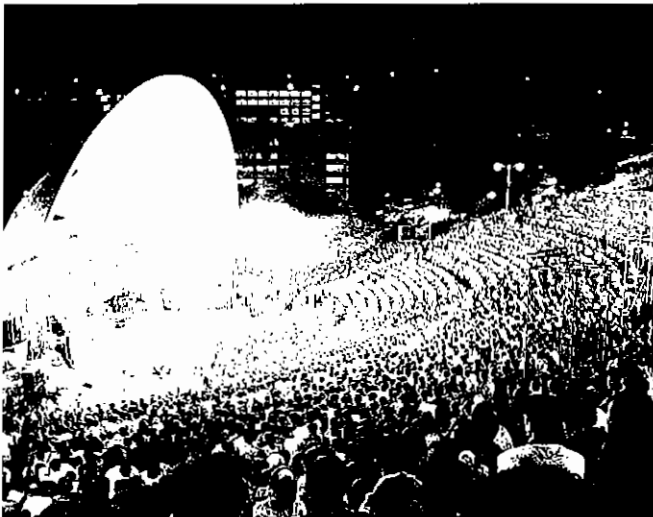
또,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8개 단과대학의 57개 전공과정에 학회실을 둘 정도로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 5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에는 전자정보실을 비롯해 2,840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자가대출 시스템을 갖춘 개가식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산정보원은 학사행정의 전산화 지원과 함께 정보화 교육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보하고 펜티엄급 PC를 갖춘 11개의 전산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회화 교육의 보편화를 위해 각 단과대학에 12개의 외국어회화 실습실을 갖추고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등의 국적을 가진 Native Speaker 강사 16명이 실전적 외국어 회화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한편, 학생서비스센터에서는 수강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취업, 학생상담 등 학생관련 업무를 ONE-STOP 방식으로 지원하는 학생중심 교육환경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 미래형 기숙사 등 시설이 우수한 대학

부산지역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490명 수용 규모의 첨단 기숙사를 갖추고 있어, 2인 1실의 학생기숙실 2백 50개와 20개의 게스트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유열람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식당 등 다양한 복지 시설을 갖추어 지역 학생들이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교



육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동의대에서는 과감한 시설투자 결과, 교육시설 확보율은 강의실 150%, 실험실습실 105%, 체육장 270%, 체육관도 100%가 넘고 있다.

## 대중평 우수대학 인정과 두뇌한국 BK21 사업대학

동의대는 개교이래 20여 년 동안 내실과 확충의 의지를 묵묵히 실천해 온 결과 지역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98년 대학종합평가에서 동의대는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 연구, 사회봉사, 시설·설비영역 등 3개 영역에서 우수대학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시설·설비영역은 상위 3개 대학에 속하기도 했다. 한편 대학원 영역은 종합우수 대학으로 인정받았고, 수업 및 논문지도 영역과 시설·설비영역은 상위 3개 대학으로 평가받았다. 이 결과는 '98년도에 56개 대학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동의대는 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 기계분야 인력양성 대학이다. 고도 사회가 요구하는 기계공학 분야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의 이해 및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 배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BK21 분야의 참여 대학으로 산업 수요에 적합한 선도적 산업교육의 기관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확보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기계공학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연간 2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학문 분야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연구에 전력을 하고 있다.

## 특성화를 통한 수월성 제고

동의대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4대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그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즉 한의학 분야, 정보통신 분야, 산학협력 분야, 관광경영학 분야 등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특성화 계획을 세우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의학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한의과대학 육성을 위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집목을 통한 제 3의학 시대 개척을 목표로 중국의 산둥중의약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멀티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산업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등 관련 학과가 유기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주목을 받고 있다.

산학협력 분야는 거점 연구소를 통해 지역 산업발전을 연계한 연구, 생산, 활용의 종합적인 효율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학협력관을 건립하여 산학협력센터,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벤처기업보육센터, 이공계 관련 연구소, 산학연 공동개발 지역컨소시엄센터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인 상호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대학의 대 사회적 역할의 신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산지역 관광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역점 사업인 21세기 발전 계획의 일환이기도 한 관광산업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인 만큼 관광 관련 인재양성을 교육 특성화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동의대는 구체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시통역이 가능한 566석의 국제회의실, 리셉션장, 호텔 수준의 각종 실습실, 인터넷 비즈니스 실습실 등을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인 국제관을 신축 중에 있다.

###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교류

동의대 학문의 세계화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독일,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국 13개 대학과 국제교류 협정을 맺고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 화동사범대, 독일 파드보른대, 일본 시모노세키 시립대 등에는 동의대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현지에서 전공을 수학 중에 있다. 또한 중국 산둥중의약대, 인도네시아 아이랑가대, 필리핀대 등과는 공동 학술연구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국내대학과는 부산지역 7대 대학을 비롯해 경산대, 경남대 등과 활발하게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미래지향적인 좌표 설정

동의대는 미래지향적 개혁 의지를 구체화 하기 위한 비전 제시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학부 및 교육중심 대학으로서의 발전의지를 첫째 '미래지향적 의지를 구조화하는 대학', 둘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학' 이라는 두 가지 지표로 함축하고 있다.

첫째 지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대학의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면서, 동의대의 경쟁기반을 확고히 하여 미래사회를 열어나갈 실용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지표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학'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연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의 정착에 따른 지역 대학으로서 지역의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에 중심적 역할과 기여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구체적 실천 방향으로 첫째,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 구조에 발맞추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 배출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지역사회 발전에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셋째,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회교육 과정 등을 통해 교육의 개방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넷째,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 **118**